막오르는 파리모터쇼 친환경 · SUV '향연'

29일(현지 시각) 언론 공개행사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파리모터쇼 2016'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파리모터쇼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다. 유럽 시장을 겨냥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과 해치백도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격년마다 열리는 파리모터쇼는 프랑크푸르트모터쇼, 제네바모터쇼, 디트로이트모터쇼, 도쿄모터쇼와 함께 세계 5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 파리모터쇼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관심을 끌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쇼카'를 최초로 공개하고 디지털화 및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쿠페형 컨셉카 '비전 메르세데스-마이바흐 6'도 선보인다. 전장 6m, 74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1회 충전으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BMW는 기존 모델보다 주행 거리를 50% 늘린 순수전기차 BMW i3를 공개한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300㎞ 주행한다. 일상 운행시 최대 200㎞를 달릴 수 있다.

폭스바겐은 15분 충전으로 480㎞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콘셉트카를 공개한다. 골프와 비슷한 크기로 알려졌다.

럭셔리 · 슈퍼카업계도 친환경차를 내놓는다.

포르쉐는 파나메라 라인 4번째 모델인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를 공개한다. 4륜 구동에 전기 주행거리는 50㎞, 시스템 파워 462마력, 최고 속도는 278㎞/h다. 페라리는 하이브리드 모델 라페라리의 오픈톱 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

식지 않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의 인기도 엿보인다.

쌍용자동차는 'Y400'의 양산형 콘셉트카 LIV-2(Limitless Interface Vehicle)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오는 201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프리미엄 대형 SUV 'Y400'의 양산 전 최종 콘셉트카다.

쌍용차는 또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수출명 XLV)도 전시 계획이다.

렉서스는 최신 컨셉트 카 'UX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의 5세대 모델을 출품한다.

유럽 시장을 겨냥한 해치백 모델도 대거 등장한다.

현대차는 3세대 i30를 출품한다. 고성능 · 고효율의 신규 터보 GDi 엔진과 7단 변속기를 달아 최고출력 140마력(ps), 최대토크 24.7kgf · m의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의 새 콘셉트카 'RN30'도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인다. 신형 i30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주행 성능을 극대화한 트랙 전용 레이싱 모델이다.

기아차는 4세대 프라이드(수출명 리오)를 출품한다. 325 l 의 트렁크 용량을 확보했고, 엔진 다운사이징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1.0 T-GDI 엔진을 장착했다. 내년 초 출시된다. 혼다 역시 내년 초 유럽 시장에 출시할 시빅 해치백을 공개한다.

/뉴시스

포르쉐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비전 메르세데스-마이바흐 6,' 1회 충전 500㎞ 주행
쌍용, 프리미엄 대형 SUV 'Y400' 콘셉트카 LIV-2
현대차 해치백 3세대 i30 · 콘셉트카 'RN30' 선보여

KT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가 인터넷 2.0' 비전 선언

KT가 지역과 이용자 장벽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는 29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가 인터넷이 출시 23개월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히면서 전국적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기가 인터넷 2.0' 비전을 선언했다.

임헌문 KT Mass 총괄 사장은 "지난 2년간은 기가 인터넷 1.0 시기로 약 10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인터넷 속도 향상과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어지는 기가 인터넷 2.0은 지역 및 경제적 제약 없이 누구나 1Gbps 속도로 생활의 여유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기가 인터넷 2.0 실현을 위해 ▲전국 2만7000여 아파트 단지(약 980만 세대)에 기가 투자 ▲전화선(구리선) 기반에서도 1Gbps 속도를 구현하는 기가 와이어 2.0 솔루션 상용화 ▲최대 1.7Gbps를 제공하는 무선랜(Wi-Fi) 서비스 '기가 와이파이 2.0' 출시 ▲100Mbps 인터넷보다 100배 빠른 '10Gbps 인터넷' 등 4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KT 기가 인터넷의 가입자 추이는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가입자 100만을 달성하기까지 약 14개월(2015년 12월)이 걸렸지만 100만 가입자가 추가 증가하는 데는 약 9개월이 소요됐다.

기가 인터넷 가입 비율은 KT 전체 인터넷 가입자 845만 가운데 약 24%를 차지한다. /뉴시스

지상파 UHD 방송표준, 북미식 확정

내년2월 방송… 수신장치 필요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표준이 북미식(ATSC 3.0)으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미래부 고시)'이 오는 30일자로 확정 ·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협의회)'에서 유럽식(DVB-T2) 방식과 비교 검토해 국내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미래부에 건의해 국내표준으로 채택됐다.

협의회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전송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검토했다.

이번 고시는 규제완화 및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방송표준방식을 핵심기술 위주로 규정하고,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최소한을 규정하는 등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기술기준 규정에 비해 대폭 간소화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방송되는 디지털방송(HD방송)과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UHD 방송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럽식(DVB-T2방식) UHDTV에서 지금과 같이 그대로 시청하면 된다.

다만 내년 2월 방송 예정인 지상파 UHD 방송을 안테나 등을 별도로 설치해 TV에서 직접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전사에서 따로 보급하는 수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에서 유럽식 UHD TV 판매시 홈페이지, 카탈로그, 판매사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도 구매시 이에 유의해 안내사항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주택담보대출 금리, 8개월 만에 오름세

8월 0.04%p 오른 2.70%
가계대출 금리는 0.01%p 하락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저축성수신 금리는 한 달만에 또 다시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운 반면, 대출금리는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3%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대출금리에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공공 및 기타 부문 대출 금리가 반영된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 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2.95%로 지난 7월(2.96%)에 이어 한 달만에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들어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0.04%포인트 오른 2.70%로,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집단대출 금리는 2.7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줄었다.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은행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대기업 · 중소기업 · 운전자금 · 시설자금) 금리는 전달 대비 0.01% 오른 3.38%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3.03%으로 전달 대비 0.05%포인트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03%포인트 오른 3.56%으로 나타났다.

최 부국장은 "그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에 은행들이 자산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1.31%를 기록했다. 이는 1996년 금리통계 편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1.31%로 전달과 동일했고,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7월(1.31%) 이후 한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30%를 기록했다. 정기적금 금리도 1.52%로 전달 대비 0.06%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금융상품도 전달과 동일한 1.35%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출금리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7월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차)는 전월보다 0.01%포인트 오른 1.92%로 집계됐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예대마진(잔액기준 총수신 · 총대출 금리차)은 전월 대비 0.01% 줄어든 2.16%를 나타냈다.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일제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모두 내렸다.

8월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은 0.03%포인트 내린 1.95%, 상호금융은 0.01%포인트 내린 1.51%, 새마을금고는 0.02%포인트 내린 1.87%를 나타냈다. 상호저축은행만 2.13%로 0.02%포인트 올렸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1.44%로 0.24%포인트 올렸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4.50%로 0.07%포인트, 새마을금고는 3.83%로 0.06%포인트, 상호금융은 3.79%로 0.02%포인트 내렸다. /뉴시스

지난해 실손 보험료 평균 18% 올라

지난해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20% 가까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4개 보험사 중 23개사가 전년대비 평균 18%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의 증가율은 47.9%(여성기준)로 50%에 육박했다.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 의료보험 총 가입 건수는 단체 실손 의료보험 가입 건수를 제외하고 생보사 592만건, 손보사 2673만건 등 총 3265만건이다.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심 대표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자 보험사들이 곧바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